

감정동사 및 감정형용사 분류에 관한 연구*

Classification System for Emotional Verbs and Adjectives

장효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sign20@hanmail.net

Hyo-Jin Jang, Dept. of Lib. and Info. Sci.,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

영상자료 및 소리자료의 색인과 검색을 위해서는 감정동사 및 감정형용사 등의 감정 어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감정어휘는 그 뉘앙스가 미묘하여 분명한 분류체계가 없이는 체계적인 정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어학과 분류사전의 분류체계를 고찰하고 새로운 감정어휘의 분류방안을 연구하였으며, 감정에 따른 기쁨, 슬픔, 놀람, 공포, 혐오, 분노의 6가지 기본유형을 제시하였다.

1 서론

텍스트정보와 달리 사진, 회화 등의 영상정보와 음악, 음향 등의 소리정보는 시각과 청각을 통해 개인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표현하는 어휘의 대부분이 동사와 형용사에 집중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동사 및 감정형용사는 영상정보, 소리정보와 여러 정보가 결합된 복합적 형태의 정보를 검색할 때 대상 정보, 타이틀 정보와 함께 검색어로서 이용되는 빈도가 잦다(곽철완 외 1998; 김명관 1998). 이들 정보의 효율적인 색인과 검색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분류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감정동사 및 감정형용사의 기존 분류체계를 분석하고 보다 효율적인 분류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2 감정동사 및 감정형용사

감정어휘는 어떤 대상이나 일 또는 현상에 대해 느끼게 되는 기분의 상태 즉, 기쁨·즐거움·슬픔·피로움·두려움·노여움·사랑·미움 등을 나타내는 어휘를 말한다.

* 이 논문은 2001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이 중, 감정동사는 형식상으로 다른 동사들과 동일한 활용양상을 보이고 내용상으로는 '기쁨, 슬픔, 고마움, 미움' 등의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용언을 말한다. 또한, 감정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품사로서 '무엇이 어떠하다'(예: 영희는 착하다)의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말인 형용사 중, 인간의 주관적인 기분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칭한다(김선희 1990; 유현경 1998).

이러한 감정동사와 감정형용사는 연구자에 따라서는 '감정' 대신 '정서', '심리', '느낌'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어휘가 인간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데 주목하여 감정동사, 감정형용사로 지칭한다.

3 감정동사 및 감정형용사의 분류체계

3.1 국어학의 분류체계

국어학에서의 어휘 분류는 어휘의 형태에 따른 품사분류와 의미에 따른 의미분류,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감정동사와 감정형용사는 의미분류방법에 의해 정의된다.

1) 어휘의 중심의미에 따른 분류

이것은 어휘의미의 대표적인 활용양상과 쓰임에 기초하여, 가장 대표적인 의미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러한 방법에 따라 어휘를 분류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천기석(198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천기석은 동사류¹⁾를 크게 동작동사류(동사)와 상태동사류(형용사)로 구분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이들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동작동사류는 授與意味, 所有意味, 移動意味, 否定意味, 比較意味, 相接意味, 操縱意味, 保留意味, 可變意味로 구분하였으며, 상태동사류는 度量狀態와 評決狀態로 구분하였는데, 이중 도량상태는 기본도량의미, 부차도량의미, 평결상태는 추론의미와 감각의미로 구분하였다.

이중 감정동사와 감정형용사는 상태동사의 평결상태에 속하는 감정 항목에 분류가 되지만, 동작동사의 소유의미에 속하는 추상소유, 상태동사의 도량상태에 속하는 부차도량의미, 평결상태의 미추에도 감정어휘는 나타난다. (표 1 참조). 이는 이들 어휘가 가장 대표적인 의미에 따라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2) 어휘의 모든 의미에 따라 중복 분류하는 경우

이것은 어휘가 가진 모든 의미를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하나의 어휘를 해당 의미 항목 모두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용주(197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표 1 천기석의 감정어휘 분류

동작 동사	소유 의미	추상소유	원망하다 등
상태 동사	도량 상태	부차도량 의미	시각 밝다, 어둡다 등
		평결 상태	미추
	감각		감정

1) 동사와 형용사의 총칭.

이용주는 『韓國漢字語에 관한 研究』에서 동사, 형용사, 명사 각각의 의미체계를 고찰하였는데, 동사를 運動과 動詞, 주체와 대상, 對人動作과 對物動作, 과정, 집합적 과정과 부분적 과정, 지각과 심적 현상, 狀態, 관계, 운동·과정의 缺如, 능동표현의 被動, 使役, 시·공간적 現場, 자극과 반응, 필연과 우연, 기타로 구분하고, 형용사는 靜的인 성질·상태, 운동의 성질, 감각, 관계, 화자의 주관, 缺如概念으로 구분하였다. 감정동사는 '지각과 심적 현상'에, 감정형용사는 '감각', '화자의 주관'에 포함되며, 다의어는 해당 의미항목 모두에 속하기 때문에, 감정어휘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항목에 중복적으로 나타난다(표 2 참조).

표 2 이용주의 감정어휘 분류

두 가지 의미가 중복되는 유형	거래하다(환경, 과정)
	보행하다(운동, 종합)
	왕래하다(운동, 집합)
	결혼하다(대인 관계)
	호흡하다(집합, 환경)
	대출하다(환경, 기타)
세 가지 의미가 중복되는 유형	갈망하다(지각, 심적자극, 반응)
	고대하다(지각, 심적자극, 반응)
	교육하다(대인, 대물, 종합)
	대답하다(대인, 자극, 반응)
	존경하다(주체대상, 지각, 심적)

이들 분류방법은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해 쓰여지지만, 각 학자마다 개별어휘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자료와 이를 검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항목과 각 항목에 포함되는 어휘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감정동사 및 감정형용사는 위와 같은 '감정', '심적 현상', '화자의 주관' 등의 항목 뿐 만이 아니라 '내적인지', '태도' 등의 다양한 항목에 분류되고 있다.

3.2 사전의 분류체계

국내의 분류사전 혹은 갈래사전은 약 10여 종에 이르며, 대부분 의미항목(사람, 물건, 일, 생물 등)에 따라 어휘를 분류하고 있다. 이 의미항목에는 감정어휘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분류사전을 분류체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품사분류가 우선하는 경우

이것은 의미분류보다 명사, 형용사/동사, 부사 등의 품사분류가 우선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남영신(1988)의 『우리말 분류사전』은 품사분류가 의미분류에 앞서며, 이에 따라 제 1권 이름씨(명사)편, 제2권 풀이말(동사 및 형용사), 제 3권 꾸밈씨(부사) 기타편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중 감정동사 및 감정형용사는 동사 및 형용사를 다루는 제2권 풀이말 편에 속하며, 풀이말은 총 151개의 대등한 분류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제 1권 이름씨편

제 2권 풀이말편

n1: 감정, 회노애락, 기분, 혐오

끔찍하다 <형> 1. 매우 놀란다.

2. 진저리가 날 만큼 몹시 참혹하다.

3. 아주 극진하다.

n2: 마음, 생각, 의지, 판단, 지식

환하다 <형> 1. 빛이 충분히 비치어 맑고 밝다.

2. 앞이 탁 띄어 넓고 시원하다.

3. 잘 알고 있다.

4. (얼굴이) 매우 말쑥하다.

5. (표정이나 느낌이) 밝고 명랑하다.

n4: 불안, 걱정, 위협, 놀람

끔찍하다 <형> 1. 매우 놀란다.

2. 진저리가 날 만큼 몹시 참혹하다.

3. 아주 극진하다.

q35: 희망, 절망, 가능, 불가능

환하다 <형> 1. 빛이 충분히 비치어 맑고 밝다.

2. 앞이 탁 띄어 넓고 시원하다.

3. 잘 알고 있다.

4. (얼굴이) 매우 말쑥하다.

5. (표정이나 느낌이) 밝고 명랑하다.

제 3권 꾸밈씨 기타편

그림 1 감정어휘 분류(1)

감정동사 및 감정형용사는 151개의 항목 중 n1, n2, n4, q35에 분산되어 있는데(그림 1 참조), 이에 따라 ‘끔찍하

다, 환하다’ 등의 단어는 서로 다른 항목에 중복해서 나타난다. 이러한 중복은 단어 자체의 다의성과 체계적이지 못한 분류체계 때문으로, 단어 자체의 다의성은 하나의 단어가 어떤 내용의 문장에 속하게 되느냐에 따라 발생한다. 이런 다의어를 각각의 의미항목 모두에 포함시키는 경우, 하나의 어휘가 가진 여러 의미를 모두 나타내 줄 수 있으므로 특정 심리 상태와 관련된 어휘는 모두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체계적이지 못한 분류체계는 어휘 배치와 항목 수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야기한다. 예를 들면, ‘n1: 감정, 기분’ 등은 ‘n2: 마음, 의지’ 등과 결합할 수 있으며, ‘n4: 불안, 걱정’ 등과 ‘q35: 희망, 절망’ 등은 n1(또는 n2)에 속할 수 있다.

2) 어휘의 의미분류가 우선하는 경우

이것은 어휘의 쓰임이나 활용에 따른 일정한 의미분류가 품사분류에 우선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남영신(1994)의 『새로운 우리말 분류 대사전』은 어휘를 사람의 생활과 관련한 9개의 의미항목으로 나눈 후 이를 다시 각 의미범주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품사분류는 어휘를 분류하는 가장 하위 기준으로 삼았다.

제 5 부 사랍

5-2 감각 및 감정

감각적 행동

보기

듣기

느끼기

맛과 냄새

감정작용

기쁨, 즐거움, 웃음

기분 상태

슬픔, 괴로움, 울음

불안, 걱정

불편, 거부

사랑, 미움, 싫음, 시샘

기타 감정

그림 2 감정어휘 분류(2)

이 사전에서 감정동사 및 감정형용사는 ‘5-2 감각 및 감정’에 속하며(그림 2 참조), ‘감정작용’에 따라 단어를 세분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분류체계에 있어 다른 항목과 대등하게 취급된 '기본상태' 항목은 나머지 다른 항목(기쁨, 슬픔, 불안 등)을 포괄하므로 대등하게 취급될 수 없다.

3) 품사분류와 의미분류가 혼합된 경우

이 경우는 품사분류와 의미분류가 혼재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박용수(1993)의 『겨레말갈래큰사전』은 대항목을 의미분류에 따라 사람, 생활, 문화, 산업 등 73개 항목으로, 중항목을 품사분류에 의해 이름씨, 그림씨, 움직임씨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소항목은 다시 의미분류를 따르고 있다. 이때 중항목의 이름씨는 특별한 구분 없이 의미항목으로만 표현하고 있으므로, 중항목과 소항목에는 품사분류와 의미분류가 혼재한다.

- I. 사람
 - 5. 마음과 사람됨됨이
 - 가. 정신과 감정
 - 나. 성격과 사람됨됨이
 - 8. 그림씨
 - 바. 마음
 - 사. 사람됨됨이
 - 9. 움직임씨
 - 마. 마음과 사람됨됨이

그림 3 감정어휘 분류(3)

감정동사 및 감정형용사는 'I. 사람'의 그림씨와 움직임씨 항목에 속하게 되는데(그림 3 참조), 이들은 별다른 분류 없이 모두 한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특정 감정에 대한 단어를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들 사전의 분류체계는 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에 비해, 각 사전이 서로 다른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고, 체계내의 분류항목이 대등하지 않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4 새로운 분류체계의 제안

4.1 기존분류체계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국어학의 분류체계와 사전의 분류체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국어학의 경우 첫째, 분류체계가 이용을 위해서가 아닌 학문적 목적, 즉 연구 목적에 따른 것이다. 이 분류체계에서는 어휘 분류의 기준이 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표

면적 의미)가 되며, 이로 인해 감정을 표현하는 의미가 부차적 의미(내포적 의미)에 속하는 어휘인 경우에는 누락되기도 한다. 둘째, 감정, 심리 또는 정서라는 하나의 항목에 모든 감정어휘가 속하게 된다. 이로 인해 특정 감정에 속하는 어휘를 찾고자 할 때 개별동사의 의미를 일일이 살펴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사전의 경우에는, 첫째, 분류체계에 일관성이 없다. 사전마다 서로 다른 분류항목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전에서도 항목이 서로 대등하지 못하다. 둘째, 검색에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특정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를 찾고자 할 때, 비슷한 감정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선정되어 있거나, 하나의 항목에 모든 감정어휘가 속해 있으면 여러 번 검색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그러나, 이들 분류체계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국어학의 분류체계에서 정서, 심리 또는 감정 항목에 속하는 어휘는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임이 명백함으로 분류체계에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사전의 분류체계처럼 어휘를 여러 감정에 따라 세분하는 경우, 좀더 효율적인 색인 및 검색을 기대해 볼 수 있다.

4.2 감정 분류에 의한 분류방안

기존분류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이들의 장단점을 아우르는, 보다 보편 타당한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영상정보 및 소리정보는 시각과 청각을 통해 감정에 영향을 미치며, 감정은 그 상태에 따라 분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표현하는 감정동사와 감정형용사는 감정의 유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정이란 인간이 느끼어 움직이는 마음속의 기분이나 생각이므로 보거나 만져볼 수 없기 때문에, 철학, 심리학, 생리학 및 의학 분야 등에서의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정의에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많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여러 감정 중 더 본질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을 구별하고, 주변적이고 부차적인 감정의 참조점 구실을 하는 '기본감정'을 설정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 기본감정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른 유형을

제안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감정(정서)의 수준에 따라 위계적으로 묶여질 수 있는 유사성을 갖고 있다.

서양의 경우,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감정을 연구해 왔는데, 17세기 데카르트는 슬픔(sadness), 기쁨(joy), 욕망(desire), 미움(hate), 사랑(love), 놀람(admiration)의 6가지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Ekman 등은 안면표정 사진에 대한 피험자의 반응을 토대로 행복감(happiness), 놀람(surprise), 슬픔(sadness), 공포(fear), 혐오(disgust), 분노(anger)의 6가지 정서를 보고하였으며, Oatley 등은 Ekman의 관련 감정을 하나의 항목으로 묶음으로써 행복감, 슬픔, 공포, 혐오, 분노의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Fromme 등은 Ekman의 감정 분류를 더욱 세분하여, 기쁨(joy), 만족(satisfaction), 고양(elation), 경악(shock), 절망(resignation), 슬픔, 공포, 분노의 8가지를 기본감정으로 제안하였다(이만영, 이홍철 1990).

동양에서는 ‘中庸’과 ‘禮記’에서 감정을 분류하고 있는데, 중용은 인간의 감정을 ‘喜怒哀樂’의 4가지 유형으로, 예기는 이에 ‘愛 惡 慾’를 더해 7가지로 감정유형을 제시하고 있다(임지룡 1999).

기본감정의 유형과 설정기준에 대해서는 문화권과 학자에 따라 서로 다른 논의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동양은 ‘喜怒哀樂’으로, 영어권은 ‘sadness, anger, disgust/ hate, fear, joy/happiness, desire/love’로 나누고 있다. 이들 감정유형을 종합하여 보면, ‘기쁨, 슬픔, 혐오, 분노’의 4가지 기본감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놀람과 공포에 대해서는 비슷한 의견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표 3 기본감정유형의 비교

서양				동양	
데카르트	Ekman	Oatley	Fromme	중용	예기
슬픔	슬픔	슬픔	슬픔	哀	哀
기쁨	행복감	행복감	기쁨	喜, 樂	喜, 樂
			만족		
			고양		
욕망					慾
미움	혐오	혐오			惡
사랑					愛
놀람	놀람		경악		
	공포	공포	공포		
	분노	분노	분노	怒	怒
			절망		

이렇듯, 이들 6가지 감정 유형은 각각의 감정이 세분될 수는 있으나 통합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기본감정유형은 6가지 즉, ‘기쁨, 슬픔, 놀람, 공포, 혐오, 분노’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들 각각의 감정유형에 해당하는 일부 어휘를 대응시켜보면 표 4와 같으며, 이때, 동사와 형용사의 명사형은 동사와 형용사로 표현한다.

이 분류체계는 국어학과 사전의 분류체계에 비해 각 항목간이 대등하고, 이들 분류체계의 장점을 아우르는 즉, 국어학적으로 감정동사 및 감정형용사로 증명된 어휘를 사전의 분류체계처럼 조직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어휘의 범위 설정과 이용 시의 빠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감정유형에 따른 분류가 기존의 분류체계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편이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 감정 분류체계와 해당 어휘

기쁨	기뻐하다, 웃다, 즐겁다, 미소짓다, 우습다, 흐뭇하다, 흥겹다, 정겹다, 반갑다, 달갑다, 귀엽다 등
슬픔	슬프다, 애잔하다, 비통하다, 눈물겹다, 복받치다, 서글프다, 아프다, 애달프다, 울다, 고깝다, 눈물겹다, 서글프다, 서럽다, 청송맞다, 구슬프다, 안쓰럽다, 애잔하다, 애처롭다, 애통하다, 안타깝다, 허전하다, 호젓하다, 섬섬하다 등
놀람	놀라다, 당황하다, 자지러지다, 질리다 등
공포	무섭다, 두렵다, 소름 돋다, 진저리나다, 질리다 등
혐오	징그럽다, 가증스럽다, 혐오하다, 미워하다, 싫어하다, 밉다, 신물나다, 알밉다, 꺼림칙 하다, 역겹다, 불쾌하다 등
분노	화나다, 성내다, 풀내다, 노엽다, 성내다, 뒤틀리다, 발끈하다, 아니꼽다, 악오르다, 언짢다, 분하다 등

5 결론

정보의 형태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용 목적에 따라 가공, 조직이 가능하므로 다양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을 표현하는 어휘의 통제 범위도 확대 또는 축소 될 수 있다. 어휘통제를 위해서는 어휘의 분류체계를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분류체계는 색인의 준거틀이 되는 동시에, 어휘간의 관계표시 및 검색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정보의 형태특성을 고려한 어휘의 통제범위 설정과 분류체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철완, 이은철. 1998.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데이터항목 속성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2): 169-187.
- 김명관, 박영택. 1998. 감정기반 정보 검색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4): 105-115.
- 김선희. 1990. 감정동사에 관한 고찰. 『한글』, 208.
- 남영신, 편. 1988. 『우리말 분류사전(2)』. 풀이말 편. 한경문화사.
- _____. 1994. 『새로운 우리말 분류 대사전』. 서울: 성안당.
- 박용수. 1993. 『겨레말갈래큰사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유현경. 1998. 『국어 형용사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이만영, 이홍철. 1990. 형용사 서술 의미의 구조에 관한 연구: 정서관련어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2: 118-138.
- 이용주. 1974. 『한국한자어에 관한 연구』. 서울: 삼영사.
- 임지룡. 1999. 감정의 생리적 반응에 대한 언어화 양상. 『담화와 인지』, 6(2): 89-117.
- 천기석. 1983. 『국어의 동작동사와 상태동사의 체계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